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n/a8a0U2qfUdH7Ll>)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3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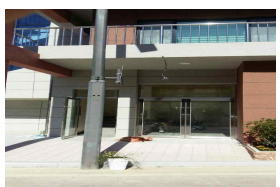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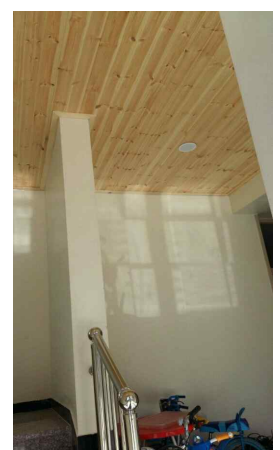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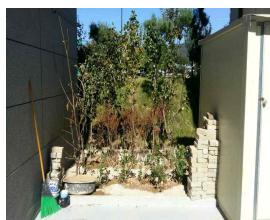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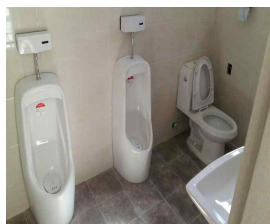
[예배당 건축 이야기]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광야길~ ♥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하여짐이라,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3~4개월이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 했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사람이 정한 기간 이
였고 하나님은 1년 이라는 기간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 숨이 막혀
올 때도 많았다. 한 가지 해결된듯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물밀듯 몰려왔다. 돌고도는 그 기간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술한 교만함 내려놓고 결국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건축이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 담당업자는 연락이 끈
기고 재정적 어려움까지 왔다. 다른 건축업자를 불러 전
체 남은공사 견적을 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나왔
다.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 목사님이 감독이
되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술공을 불러서 공사를 했고
내부에 세부적인 전기공사, 화장실(변기, 천장), 로비(돌붙이
기), 계단(천장 마감공사), 화단공사, 주차장공사, 예배당(창틀공
사)등은 시부모님께서 오셔서 잠을 아끼시며 마무리 해주
셨다. 화단의 나무는 아버님께서 지인분들께 기증 받아오
셔서 월산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종일 땅을 파고 심
고 물주고 아름답게 가꿔주셨다. 나무를 심으니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주차장 공사와 토사 처리는 사
촌동생과 이모부가 오셔서 수고해주셨다. 이렇게 부모님
과 친척 형제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



준공서류 15개 필증 중 단열재 필증에 브레이크가 걸렸었다. 건축업자는 연락두절상태라서 단열재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쌓여있는 종이쓰레기를 뒤졌는데, 그 속에서 단열재 거래명세서를 발견케 하셨다. 그러나 단열재 회사 측은 건축업자가 결재를 해주지 않아서 필증을 만들어줄수 없으니 업자대신 교회에서 갚아 주면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했다. 당장 단열재 비용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어서 막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간절함 들으시고 건축을 위해 중보해주시던 어느 집사님을 통해 해결해 주심으로 필증을 받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또 샷시업체의 대금 독촉으로 기도중일 때 하나님은 어느 부부집사님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어 해결케 하셨다. 할렐루야~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만 떠오릅니다. 광야 같은 시간동안 재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것, 입을것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더 배불리 먹이셨고 더 따뜻하게 입히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도 없던 일들을 우리가 겪고 헤쳐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4개월 동안 건축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 많은 시험을 통과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문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자 예배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처이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곳이라 믿습니다. 남편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사역하는 것이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매순간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준공이 되어지면 십자가와 교회 이름을 달고 본격적인 복음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천동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뜻을 이루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희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18년 성탄절 감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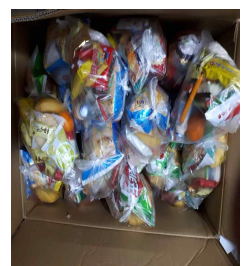
수원에 계신 집사님께서 매년 성탄절에 잊지 않고 과자상자를 보내주셔서 올해도 과자꾸러미 만들어 교회학교 아이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9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코코아와 간식, 남편을 위한 홍삼은 어머니같은 서울에 권사님께서 보내주셔서 매주 온교우들이 점심식사후 후식으로 먹으며 감사함을 나눕니다.

풍성한 과일은 12월24일 아침일찍 교회에 풍선선생님께서 오셔서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성탄절 예배후 식사하고 풍성한 과일을 성도들과 먹으며 감사함을 나눴습니다.

이밖에 이모저모로 채워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에 따뜻하고 평온하게 성탄절과 연말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9년 교사임명 및 개척 후 첫 서리집사 임명]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새해 주일에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예배시간 내내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감격되는 이날. 개척후 첫 서리집사 임명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집사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중학교때 만났던 귀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사임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들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갖춘 성문교회가 되었지만, 전체 교인 30명 정도 되는(학생들 포함)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라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건축업자의 사기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년에 걸쳐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공절차만 남았습니다. 준공 후 입당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3. 2019년 교회 새로운 일꾼이 임명되었습니다. (3명의 교사청년과 2명의 서리집사)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기도바랍니다. 그리고 반주자와 차량운전 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4. 자녀들이(이하람4학년, 이하울2학년) 학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5. 저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남편: 잦은 소화불량, 아내: 어깨와 등)